

보도자료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배포일	2017. 10. 12.(금)	배포	기획처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수상자 선정: 학생지원과(학생), 대외협력팀(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문의	홍보팀(02-880-5054, 9072)

서울대학교 제72주년 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권오현 회장, 송상현 명예교수, 故이청준 선생 등 선정

- 서울대학교는 2018년 10월 12일(금) 오전 11시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72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한다.
-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 교육부총장은 기념식사에서 “현상유지의 사고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 없이는 대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 통일평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서울대학교의 혁신에 앞장서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교기념식사 별첨】
-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한다. 올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66, 1975년 전기공학과 졸업), 송상현 명예교수(77, 1963년 법과대학 졸업), 소설가 故이청준 선생(1966년 독어독문학과 졸업, 2008년 작고) 등 3명을 선정하였다. 【공적사항 주요 내용 별첨】 서울대학교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지난 1991년부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 개교기념식 주요 식순(2018. 10. 12.)

- 국민의례
- 장기근속 교직원 및 봉사 우수학생 표창(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 관악봉사상: 송미라(국어국문학과, 해외봉사 및 멘토링 등), 박가영(역사교육과, 장애인 및 탈북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등), 김동민(소비자아동학부, 국내외 봉사 및 멘토링 등)
 - 사회봉사활동체험수기: 조정은(영어영문학과,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고은지(심리학과, 시각장애인 봉사), 신루희(간호학과, 소록도 봉사), 유남규(경영대, 봉사동아리 활동), 안수지(조선해양공학과, 해외봉사), 김동현(농경제사회학부, 해외봉사)
-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 개교기념사(총장 직무대리), 축사(신수정 총동창회장)

**[붙임] 개교기념식사(총장 직무대리),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주요 공적사항,
총동창회장 축사**

【붙임1 개교기념식사】

「제72주년 개교기념식」 식사

존경하는 전임 총장님, 이사장님, 총동창회장님, 내외 귀빈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족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성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서울대학교는 개교 7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견인하고 세계무대에서 국가를 빛낸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올해 개교기념일을 맞아 세계 3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간의 대학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946년 현대적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염원 아래 서울대학교는 1개 대학원과 9개의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국립종합대학교로 출범하였습니다. 학문의 기반이 척박했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학문의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1975년에는 관악캠퍼스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종합캠퍼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만년 응비의 대학 터전이 되기를 기대했던 관악캠퍼스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 40여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와 사회의 진로를 밝히고 겨레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이 되겠다는 소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서울대학교가 기득권을 지키려 애쓰고, 우월주의와 특권의식을 내세우며, 지성의 모범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차기 총장 선출절차가 완결되지 못해 총장궐위 사태에 처한 지금 깊은 반성과 성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도기에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저는 어느 때와는 다른 무거운 마음으로 개교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한 나라의 상태를 알려면 그 나라의 감옥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가 보유한 대학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대학은 국가의 뿌리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려면 우리 모두가 교육자로서 진정한 사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북송(北宋) 시대의 유학자인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經師易求 人師難得(경사이구 인사난득)이라고 하며 참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서를 가르치는 스승은 구하기 쉬워도 인생의 스승을 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배워 가르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사람을 기르는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人師의 길은 각고면려를 요구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두서너 달 안에 제27대 총장이 취임하고 저는 총장공백기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서울대 교수로서 살아오며

바라왔던 몇 가지 소망으로써 기념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서울대학교의 혁신입니다. 하버드나 예일, 그리고 옥스브리지 대학 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든, 싱가포르의 난양공대나 스위스의 로잔연방공대와 같이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세계 최상위 권에 드는 대학이든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발전하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혁신’입니다.

세계의 대학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혁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상유지의 사고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 없는 대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대학도, 기업도, 국가도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 평화의 정착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지구상에 냉전 체제가 유일하게 남아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과 대결로 점철되고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체제가 구현되고, 남북한이 다시 민족통합을 이루어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대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남북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작함으로써 남북한 간 신뢰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머지않아 선출될 새 총장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고, 균형적인 사고, 합리적인 대화와 민주적인 토론이 충만한 대학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성의 기본 바탕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며 성찰 없는 지성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지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힘겨운 내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70여 년 간 서울대인은 산업화를 이끈 역군이었고,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민주화에 헌신한 애국자였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기여를 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평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서울대학교의 혁신에 앞장서고 또한 참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총장직무대리 교육부총장 박 찬 욱

【붙임2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주요 공적사항】

□ 권오현 회장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연구원으로 반도체 분야 신기술 개발에 본격 참여한 권오현 회장은 1980년대 4M DRAM 개발과 1990년대 64M DRAM 세계 첫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삼성전자가 256M 1G DRAM 등 4세대 반도체 기술에서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제적인 반도체 전문가로 반도체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 송상현 명예교수

1972년부터 30여년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한 송상현 명예교수는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여러 법 제·개정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법제를 갖추는데 공헌하였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초대 재판관을 역임한 후 소장에 취임하여 국제 형사사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 정착에 헌신하였다.

□故이청준 선생

故이청준 선생은 서울대 재학중이던 1965년 사상계에 단편소설 「퇴원」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이후 2년만에 단편소설 「병신과 머저리」로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자리매김하였다. 40년 이상 씩없는 창작의 외길을 걸었으며 깊은 문학적 사유와 지성적 글쓰기를 통해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지성적인 작가로 손꼽히고 있고, 작품 46편은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나라 문학의 세계화에도 공헌하였다.

【붙임3 축사-신수정 총동창회장】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날, 관악캠퍼스에서 존경하는 박찬욱 총장직무대리 교육부총장님을 비롯해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 개교 72주년을 맞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저는 1959년에 신입생으로서 동숭동 캠퍼스를 살짝 맛보았고, 유학 후 돌아와 을지로 음
악대학에서 시작해서 1976년 음악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옮긴 후 모교에서 가르쳤고, 이곳
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가 세계의 서울대학교로 발전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총동창회와 모교
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음은 또 더한 보람이라 여겨집니다.

저희 때는 11개 단과대학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27개의 단과대학과 대학
원들이 관악에 모여 커다란 학문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만, 오늘날엔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서울대학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상의 세계적인 서울대학교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우리들의 서울대
는 ‘진리는 나의 빛’을 모토 삼아 끊임없는 비상의 날개를 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는 서울대 개교 72주년이자, ‘개교 원년’을 찾으시려고 많은 애를 쓰신 임광수 전
동창회장님의 공로로 개학 123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제2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을 수상하신 권오현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님, 송상현 모교 법대 명예교수 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님, 고 이청준 소설가님께 마
음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교 발전을 위해 힘쓰셔서 공로표창을 받으신 교직원 여러분들, 봉사를 실천해서
학교의 이름을 높인 후배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대학교 개교 72주년을 축하합니다.

총동창회에서는 오는 10월 21일 개교 72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벼들골에서 엽니다.
아름다운 계절, 관악산의 뛰어난 풍광 속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꼭 다시 뵙기를 기
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신 수 정